동국대 공무원 동문, '불교 중흥' 힘 모은다

동공회·7080동문, 1회 야단법석
6월 23일 교내 정각원서 개최
첫 강연자로 이사장 돈관 스님
"동국 발전이 불교 발전" 강조
동국동문 리더 초청 강연 계획



동공회와 동국대 7080동창회는 6월 22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제1회 야단법석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은 포럼 직후 진행된 기념촬영에서 '동국중흥'을 외치는 참가자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동국대 출신 공무원들과 7080동문들이 학교 발전과 불교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동국대 공무원 동문 모임인 동공회(공동회장 홍영표·이주환)와 동국대 7080동창회(회장 김종필)는 6월 22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제1회 야단법석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의 강연자로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이 나서 '동국발전과 불교중흥'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돈관 스님은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고각하(照顧脚下)'라는 경구를 잘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돈관 스님은 "건학위원회 고문 자승 스님은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부처님 7대 성지 1167km를 걷는 상월결사 인도순례를 진행했다. 당시 자승 스님은 '인도는 부처님이 탄생한 곳인데 부처님이 없다. 방일하면 한국불교도 동국대도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셨다"면서 "고문스님의 말씀대로 현실을 바로 보지 않고, 자기 발밑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한국불교의 미래는 어둡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교 전각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조고각하'의 경구를 우리는 가슴 깊이 되새겨야 한다"면서 "동국발전이 불교중흥이고 불교중흥이 동국발전임을 강조한 자승 스님의 말씀처럼 학교 발전이 불교와 한국사회 발전임을 알고 동문들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돈관 스님은 건학위원회의 비전과 5대 핵심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동국건학장학과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을 소개하며 권선 동참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동문들은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김종필 동국대 7080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7080동창회와 2013년 결성된 동공회는 사회를 선도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대거 포진한 모임이다. 우리는 초대 동창회장인 한용운 스님 이래 105년의 동문회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진정한 동국의 별들"이라며 "코로나19 대유행을 지나 35만 동국동문의 소통과 대통합을 위해 이 같은 야단법석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야단법석은 동국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깊게 연대하고 부활할 것을 선언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윤재웅 총장, 문선배 총동창회장, 전하성 씨엔티테크 대표이사 등 동문 리더를 초청해 강연을 여는 등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동국대 동문으로서 동공회 창립을 이끌었던 윤재웅 총장은 축사를 통해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전 7가지 법을 설하시며 이를 잘 지키면 승가는 쇠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이를 '칠불쇠법'이라 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덕목이 화합이다"며 "화합은 승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추구해야 할 미덕이다. 우리 동국대 구성원 모두 화합하면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동공회 공동회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주환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축사를 통해 동문 간의 연대와 결속을 다짐했다. 홍영표 의원은 "우리 동국동문들은 서로에게 디딤돌이 됐으면 한다"고 했으며 이주환 의원은 "오늘 포럼이 동국중흥과 불교중흥을 이끄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야단법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윤재웅 동국대 총장을 비롯해 문선배 동국대 총동창회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주환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태선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김종필 내일신문 이사, 이호중 대한LPG협회장,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제43회 만해백일장 대상 안양예고 성은채

시 '여름의 문양' 수상…대통령 표창 받아



제43회 만해백일장 수상자들의 기념촬영. 사진=대한불교청년회

안양예고 성은채 양이 시 '여름의 문양'으로 제43회 전국만해백일장 만해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장정화)는 6월 17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일원에서 '제43회 전국만해백일장'을 개최하고,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이날 오후 수상자 발표와 시상식을 진행했다.

대통령 표창인 만해대상은 안양예고 성은채 양이 시 '여름의 문양'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성은채 양은 영상통화를 통해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더 좋은 글을 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형렬 심사위원장은 "대상 수상작이 순수했던 고교시절을 떠올리게 한다"며 "40년 동안 글을 써오며 스스로 때가 묻은 게 아닌가 돌아보게 하는 작품"이라고 심사평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 신설된 동국대 이사장상(장원)은 전유주(서울 문현초)의 '진정한 꽃(시·시조부문)', 최지유(압구정초)의 '창문 밖으로 볼 수 있는 것(산문부문)'이 받았다. 이외에도 강원지사, 경기도교육감, 문체부장관, 교육부장관, 동국대 총장, 서울시장상 등이 장원 수상자들에게 수여됐다.

장정화 대불청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전국만해백일장은 항일 역사의 중심에서 계셨던 만해 한용운 대선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며 "국내 최고 권위의 백일장이라는 명성을 이어가고, 관심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건축·불상 등 불교문화재 보물 지정 잇달아

문화재청 21, 22일 지정예고
18세기 불전 백련사 대웅보전
조선시대 불화, 불상도 지정돼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 전경.

고려시대 불교혁신 운동인 백련결사가 시작된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을 비롯해 조선시대 불화 불상 등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전남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고 6월 22일 밝혔다.

강진 백련사는 고려말 원묘국사 요세(1163~1245)의 결사처로, 주불전인 대웅보전은 1760년 화재 이후 1762년에 중수한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의 단층 건물이다.

대웅보전은 공포의 형식과 초각 등 세부기법이 화려하고, 기둥 상부의 용머리 조각, 천장 상부의 용머리 장식 등은 해학적이고 섬세하게 표현됐다. 실내를 채운 여러 마리의 용과 봉황 장식 등은 18세기 이후 불전 건축이 장식화 되는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

또한 대웅보전 중수 기록인 〈만덕산 백련사대법당중수기〉와 사찰 기록인 〈만덕사지〉 등을 통해서 대웅보전의 중수 배경과 불사에 참여한 장인의 계보와 교류가 확인돼 불교사와 건축사를 고찰할 수 있어 학술적인 가치도 매우 높다.

문화재청은 "백련사 대웅보전은 화려한 18세기의 건축적 특징과 관련 기록이 풍부하고, 역사적 의미가 담긴 건축물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문화재청은 6월 21일 순천 동화사에 봉안된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과 아미타여래구존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

'순천 동화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은 수조각승 계찬을 비롯해 인계, 영언 등 7명의 조각승들이 1657년(효종 8) 완성해 동화사 대웅전에 봉안한 삼불상이다. 세 불상의 복장 유물을 통해 조각승 간의 협업과 분업, 불상 제작에 필요한 물목과 공정을 이해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된다는 점에서 큰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불상을 조성한 계찬은 17세기 중엽의 대표적인 조각승으로 응혜와 승일 등 당시 대표적 조각승의 작업 현장에서 기술을 배우고 익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상들은 계찬이 수조각승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사례이다.

울산박물관에 소장된 '아미타여래구존도'는 1565년(명종 20)이라는 제작연대가 정확한 조선 전기 불화로, 화기에 조성연대, 화제, 시주질 등이 기록돼 있다. 조선 전기에 그려진 아미타여래구존도는 6점이 현존하는데, 국내에 있는 작품 중 유일하게 제작연도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채색 불화이기도 하다.

문화재청은 "울산박물관 소장 '아미타여래구존도'는 고려 후기~조선 전기 불화의 형식과 양식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라며 "조선 전기 불화는 대부분 국외에 있고, 국내에 현존하는 작품은 그 사례가 드물어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장에 정묵 스님

6월 21일 임용장 수여식


(사진 왼쪽부터)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과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이 임용장 수여 직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에 정묵 스님이 임명됐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6월 21일 동국대 본관 4층 법인 접견실에서 불교학술원장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불교학술원장으로 임명된 정묵 스님의 임기는 6월 22일부터 2025년 6월 21일까지다.

신임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은 1976년 수덕사에서 법장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정묵 스님은 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 주지, 12~15대 중앙종회의원, 중앙종회 수석부회장,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 선본사 주지, 호압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현재 지구촌공생회 이사, 수덕사 근역성보관 박물관장 소임을 맡고 있다. 신성민 기자

사노위, 이태원 특별법 제정 촉구 행진

6월 20일, 서울광장~여의도 국회
단식 농성 지원…추모기도 봉행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사노위)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거리 행진에 나섰다.〈사진〉

사노위는 6월 20일 서울광장에서 여의도 국회까지 8.8km 거리를 2시간 가량 행진하며 이태원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족들에게 힘을 보탰다.

행진에 앞서 사노위 현성 스님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8개월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변화가 없는 현 상황을 개탄했다. 현성 스님은 "믿을수 없는 사회적 참사에 우리 사회가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대통령은 반응이 없다"면서 "매일 서울시청 분향소에서 국회로 걸음을 옮기고 있는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응답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6월 중 행정안전위원회가 특별법을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한 스님은 "하루하루 피 말리는 죽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우리 사회의 안전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이제는 국회가 특별법 제정으로 답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리행진 후 국회 앞에 도착한 스님과 유가족들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유가족 단식 농성 시작 기자회견'을 열었다. 159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의미로 오후 1시59분에 시작된 기자회견에서 유가족들은 "지금껏 힘들고 어려웠던 하루하루를 그나마 이악물며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특별법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도 있다는 희망 때문"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고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사노위 스님들은 유가족들이 단식 농성하는 국회 농성장에서 추모기도회를 봉행했다.

사노위 여등 스님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한없이 아파하고 하루하루 죽음의 나날을 보내는 유가족들이 단식까지 하는 모습이 참담하다"면서 "우리 사회가 다시는 이 같은 참사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없길 바라는 유가족들의 바람이 어려운 것이냐"고 되물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일침을 가하며 "지금이라도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사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은 6월 7일부터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을 시작했다. 8일부터는 서울 광장 분향소부터 국회까지 8.8km를 걷는 '10.29 이태원 참사 159km 릴레이 시민행진'을 진행 중이다. 사노위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연대와 기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서울 불광사, 신임 주지 동명 스님 고불식

6월 17일, 경내 보광당서
"불광 명성 회복하겠다"



서울 불광사 신임 주지에 동명 스님이 취임했다.

불광사는 6월 17일 경내 보광당에서 신임 주지 동명 스님의 취임 고불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고불식에서 동명 스님은 먼저 부처님 전에 임명장을 봉정했다. 이어 인사말을 통해 "불광사를 창건한 광덕큰스님의 뜻을 이어 대중과 화합하며 수행과 전법에 혼신을 다하겠다"면서 "불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는 도량, 슬프고 힘겨울 때마다 다시 찾는 바라밀 도량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부족함이 많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과 신도들, 종무원 그리고 모든 불광형제들과 함께 불광의 명성을 회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앞서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사장 보광 스님은 6월 16일 오전, 목동 법안정사에서 동명 스님에게 불광사 주지 임명장을 수여했다. 스님은 "문도스님은 물론 신도들과 화합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허물을 들추지 말고 오로지 불광사 발전을 위해 수행과 전법교화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하고 불광사 발전을 위해 부처님전에 직접 축원하며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신임 주지 동명 스님은 해인사에서 사미계를 받았으며 중앙승가대 졸업 후 구족계를 받았다. 중앙대에서 문학박사, 동국대 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조계종 4급, 3급 승가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했으며 현재 조계종 교육아사리다. 임은호 기자


조계사는 6월 21일 '단오재 화기애애'를 개최하고 소금단지 봉안을 통해 화재예방을 염원했다.

서울 조계사, 화재예방 '단오재 화기애애'

6월 22일 경내 대웅전 앞마당서
소금단지 봉안, 어르신 세족식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6월 21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단오재 화기애애'를 개최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소금단지 봉안과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세족식을 진행했다.

주지 지현 스님은 청정수 결계를 하고 물 수(水)를 쓴 후 소금단지를 봉인했다. 이후에는 동·서·남·북 사방에 소금단지를 묻었다.

지현 스님은 "소금단지 봉안은 조계사에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액을 막고 더불어 동참하신 신도들의 가정에도 액운이 떨쳐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